

## 〈書評〉

## International Economics

by Peter B. Kenen

Copyright 1964, 1967 b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任 民 友  
(中央大學校 政經大學·教授)

이 책은 Harvard 大學校 教授인 Otto Eckstein 氏가 편집한 現代經濟學叢書(全 9 卷) 가운데 하나로서 현재 Columbia 大學校 教授인 Peter B. Kenen 氏가 집필한 國際經濟學이다. 31歲에 Columbia 大學校 正教授가 된 Peter B. Kenen 氏는 1932年 Ohio 州에서 탄생하였고 Columbia 大學校를 거쳐 Harvard 大學校에서 M.A., Ph.D 學位를 받았으며 研究生으로서 London School of Economics 에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신진 경제학자인 동시에 美國 政府機關의 고문·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國際經濟政策論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國際金融이나 通商政策에 관한 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는 요즘 國際資本移動에 관한 연구도 거듭하고 있는 우수한 이론가로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밝은 전망을 보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원문 120페이지의 신국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國際經濟學에 관한 어떠한 책 보다는 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고 國際經濟學의 중요성과 그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Kenen 教授가 全文 6章으로 구성시킨데 성공한 책이며 또한 그 내용과 특징을 고려할 때 第1章은 國際經濟에 관한 서론적 설명을 밝히고 결론으로 전개한 第6章은 國際經濟의 전망을 밝혀 주었으며 第2章과 第4章에서는 國際貿易論과 國際收支論을 理論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였

고 第3章과 第5章에서는 國際貿易政策과 國際金融政策에 관한 제문제를 엮어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國際經濟에 관한 理論과 그에 대한 動向을 대단히 진밀하게 대응시키 가면서 현실적인 커다란 하나의 흐름을 이해 시키는데 대비한 점에 특징이 가로놓여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第1章에서 Kenen 教授는 國家를 國際經濟를 구성하는 '하나의 經濟單位로 인정하면서 그네들의 對外去來와 國內去來와의 상이 점을 史的으로 고찰한 한편 國際貿易이나 國際決濟에 관한 문제를 어떤 나라의 입장에서 注視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世界全體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연구할 것인가 하는 觀點과 公共政策의 變化를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그 評價를 판단할 수 있는 基準으로서 첫째, 貿易과 決濟가 一國內의 資源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그것이 參加諸國間의 經濟上에 어떠한 課業을 再分配할 것인가 하는 效率性과 둘째, 貿易은 一國內의 所得과 富의 分配을 어떻게 變更할 것인가 하는 公平性, 셋째, 貿易은 國內의 攪亂에 대한 經濟的 反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安定性, 넷째, 一國의 對外貿易은 그 나라의 成長率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經濟成長을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2章에서는 貿易과 資源分配을 說明하기 위해 Ricardo의 比較生產費說을 論證 幾何學的으로 풀이하여 가는 한편 多數國 多數商

品の 交易關係가 生産要素存在量(資本集約的인 경우와 勞動集約的인 경우)이 貿易을 야기시키는 원인규명도 그러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또한 關稅가 貿易利益分配에 미치는 영향과 關稅가 國內所得分配과 一國의 雇傭量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는 關稅가 그 나라의 經濟構造를 變遷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도 幾何學的으로 이해시켜주고 있다.

第3章에서는 貿易政策의 諸問題로서 西유럽과 美國의 關稅史가 두개의 類似한 循環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주고 兩者의 歷史도 經濟理論, 産業發展, 國內政治에 영향을 여실히 미치고 있음을 잊지 않았다. 著者は 유럽에 있어서의 關稅는 나폴레온戰爭後에 저하되기 시작하여 1860年 이후에 最下點에 달하였음은 英國이 一方的으로 先導함에 따라 大陸諸國이 關稅協定에 의하여 그 뒤를 따르게 되었고 1880年 이후에는 다시 上昇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侵略的인 帝國主義의 再現과 農産物貿易의 變化에 의해 이루어진 政治權力의 移動에 의한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貿易制限은 1930年代에 더욱 심각하여 졌으나 1930年代의 數量的貿易統制는 第2次大戰中에도 存續하여 오다가 1950年代에 이르러서 서서히 除去되었고 유럽諸國의 關稅障壁는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유럽내의 貿易에 한한 것이어서 外部世界로부터의 輸入은 여전히 完化되질 않은채 오늘날의 유럽經濟共同體가 最終産物로 登場하게 되었음을 논하고 있다.

한편 美國에 있어서는 유럽과는 反對로 나폴레온 戰爭後 關稅는 上昇하였으나 1840年代와 1850年代에 저하되었다가 다시 南北戰爭을 계기로 關稅는 上昇되었고 그것이 第1次大戰直前까지 계속되었으며 다시 그후 上昇되어 1930年의 [호우레이-스모트]法에 의해 그 最高記錄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30年代의 美國은 多數國과 關

稅協定을 締結하고 1940年代 및 1950年代에는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の 主催國으로서 새로운 關稅交渉에 參加하였으나 貿易協定法에 대해 負債條項, 危險點에 관한 規定, 國家安定保障에 관한 條項의 制限措置를 덧붙임으로서 美國의 計劃은 情性을 잃게 되었고 1962년에는 E.E.C.의 挑戰에 對應하여 새로운 貿易立法을 마련함으로써 現在 大統領은 美國의 大部分의 關稅를 引下시킬 權限을 쥐고 있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第4章에서는 對外經濟政策을 두가지 次元에서 다루고 있다. 즉 하나는 開放經濟는 對外貿易과 對外投資의 利益을 獲得하기 위한 通商政策의 樹立이며 또 하나는 對外去來面에서 貨幣의 均衡을 維持하기 위한 金融政策의 樹立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著者は 本章에서 國際收支의 概念을 설명하고 그것을 調整하기 위한 方法으로 伸縮換時勢制下에서의 調整과 純金本位制下에서의 調整 그리고 管理換時勢制下에서의 調整을 美國의 國際收支表에 의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갔다. 한편 國內均衡과 對外均衡을 달성시키기 위해 國民所得과 결부시켜 生産費와 價格이 硬直的인 경우에는 所得變化를 통하여 調整해야 됨을 강조하고 所得變化를 통하여 調整해야됨을 강조하고 所得變化의 一部가 直接的이며 自動的으로 야기되느니만큼 輸出減少는 國民所得을 減少시켜 國內商品과 輸入商品에 대한 支出을 작감시키게 된다는 점과 所得變化의 一部는 다시 貨幣政策에 의해 間接的으로 일어나므로 國際收支赤字國의 利率이 上昇되면 投資를 阻害하게 되고 國民所得을 引下시켜 輸入抑制을 조래하게 됨을 서술하고 있다.

第5章에서는 國際金融政策을 史的으로 논하여 주었다. 第2次大戰이 종식되기 전에 모든 政府는 國際貨幣制度의 再建을 計劃한 바 있고 第1次大戰後에 이러한 外換時勢變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決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換時勢를 設立함과 그뒤의 秩

序있는 變化를 助成하기 위해 1944年 부레튼 원스協定이 체결되어 各國의 國際收支가 “基本的 不均衡”에 빠지지 않는 한 平價切下를 하지 않도록 努力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한편 現行制度에 대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反對論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전제아래 現行制度는 換時勢를 固情시키고 있으나 그것이 國際收支의 均衡을 유지하도록 용이하고 신속하게 變化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目的達成을 위해 IMF의 改組가 요망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끝으로 第6章에서는 國際經濟의 進化는 累積인 과정을 지녔으며 輸出의 기회는 投資의 量이나 形態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資本設備増大를 形成시켰음을 논하고 設備増大와 熟練은 새로운 生産可能性을 야기시키는 한편 새로운 貿易形態를 創造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世界經濟中心部諸國의 輸入은 急速히 成長하고 그 結果

로 低開發諸國 가운데의 몇몇 나라는 繁榮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즉 石油에 대한 需要에 의해 巨額의 外國資本이 近東과 베네주엘라에 보내지고 그 나라들은 石油에 의한 收入을 開發資金으로 充當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하나의 國際經濟를 지향하기 위하여서는 人間生活의 進步는 急激한 變革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既存制度나 慣行의 적은 變化가 서서히 累積됨에 따라 야기되는 交易이 進展되어감이 妥當함을 強調하고 있는 한편 貿易이나 援助는 반드시 世界經濟周邊諸國을 發展시킨다고保證하지 못하며 發展에 의해 政治的 安定이 確保되는 것도 아닐뿐 아니라 오히려 失敗하면 周邊諸國의 成長이 抑制될 것이 確實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있다(이 책은 本人이 번역하여 1968年 5月 經濟新聞社에서 發行하였음).